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첫 도시관 '광주' 등장

광주시립미술관 2~3층에 조성 '무등' 키워드로 광주정신 조망 5·18세대 등 18명 예술인 참여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부록전시 격인 국가관 파빌리온에 첫 도시관으로 '광주관'이 조성돼 눈길을 끈다. 광주 파빌리온은 '무등: 고요한 긴장'이라는 주제로 오는 12월 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2~3층에서 이어진다.

2018년 광주비엔날레 행사부터 시작된 국가관 파빌리온은 올해 광주 곳곳 갤러리, 문화기관 등지에 역대 최대규모인 31곳이 마련됐다. 첫 도시관으로 조성된 파빌리온 '광주관'은 안미희(전 경기도미술관장) 기획자가 지휘봉을 잡았으며 '무등'이라는 키워드 아래 광주비엔날레 존립 이유인 '광주정신'을 조망한다.

파빌리온 광주관 '무등: 고요한 긴장'은 '무등'의 의미가 광주의 지역성과 지난 시간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단서임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한다.

특히 이 개념이 광주가 마주했던 5월의 아픔을 보듬는 일에 충실해야 함에 공감하고 이를 현재적 의의로 계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전시에서는 광주의 5월을 경험한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 그리고 광



12월 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이어지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광주관' 전경.

주의 무수한 공동체들이 참여작가로 등장한다.

전시는 크게 세 개의 키워드인 '혁신적 연대', '창의적 저항',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으로 구성된다. 처음 눈길을 끄는 것은 '무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아카이브, 인터뷰, 집담회, 설문조사 등 여러 내

용을 집대성한 첫 번째 섹션 '혁신적 연대'의 전시물이다. 연구자, 언론인, 문화 기획자, 작가, 디자이너 등의 참여자들과 광주정신이 오늘날 제시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한다. '무

등'이라는 단어의 기원과 '무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 법인, 음식점 등의 사연을 접할 수 있다.

이후 전시에서는 김신윤주, 김웅현, 나현, 송필용, 안희정, 양지은, 오종태, 윤준영, 이강하, 이세현, 임수범, 장종완, 장한

나, 정현준, 조정태, 최중운, 하승완, 함양아 등 총 18인의 작품이 소개된다. 전세대에 거쳐 구성된 작가들은 회화, 사진, 영상, 설치 등 신작 포함 총 5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참여작가들은 세대나 시기, 장르 구분에서 탈피해 도처에 편재하는 고정관념과 부조리의 상황에 응답한다. 이들은 광주의 5월과 그 이후의 시간에 축적된 시민들의 저항 정신을 가시화한다.

전시작 중 5·18민주화운동 시민군 출신 이강하 화백의 '무등산의 봄'이 눈에 띈다. 이강하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으로 무등산 전경이 드리워져 있는 회화다. 화폭에 펼쳐진 '무등산의 봄'은 실재하는 것이기보다 작가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상 속 모습에 가깝다. 특유의 사실적 묘사를 기반으로 생명력 가득한 남도의 풍경을 그려내 사회가 안고 있는 애환을 끌어낸다.

'지속 가능한 정'의 '무등'의 화두를 전 인류가 마주한 시급한 문제와 도전으로 확장시킨다. 전시는 기후 위기, 경제 불균형, 기술의 남용, 지속되는 전쟁과 에너지 고갈 등 전 지구적인 이슈를 인식한다. 더불어 참여 작가들은 예술을 통해 문명의 욕망이 초래한 기후와 환경의 위기를 가시화하며, 자연을 향한 인류의 왜곡된 태도를 재검토해야 함을 주장한다.

글: 사진=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10년후그라운드서 즐기는 '예술가의 시간'

광주문화재단 '광주예술로' 사업 내일 남도 전통술 주제로 공연 등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지원사업(광주예술로) 관련 협업 프로그램이 제3회 골목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양림동 곳곳에서 진행된다.

협업 프로그램은 '예술가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0년후그라운드(대표 이나영)'가 함께 한다. 또 조형예술가 백상욱, 작곡가 이승규, 국악인 고희영, 시각예술작가 김유나 등 예술인 4명이 참여한다. 10년후그라운드는 향후 '예술가의 시간'을 예술가와 직접 대면해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내용으로 정식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예술가의 시간' 프로그램은 10년후그라운드 그라운드홀에서 개최되며, 먼저 △10월 9일 오후 7시 '남도 음.주.(音酒)'가 준비돼 있다. 국악인 고희영의 진행으로 전통 악기 연주와 남도의 술을 함께 즐기는 내용이다. 나주·고흥·진도 등 지역의 특색있는 전통주를 즐길 수 있는 풍류의 시간이 펼쳐진다. 참가비는 3만 5000원이다.

두 번째로 △10월 16일 오후 7시 '퇴근 후 담화'가 진행된다. 시각예술작가 김유나가 어려운 예술 개념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참가비는 1만 5000원이다.

참가신청은 양림골목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남도 음.주.(音酒)' 15명, '퇴근 후 담화' 7명 등 각각 선착순 모집한다. **도선인 기자**

ACC 창·제작 작품, 국제전 초대 성과

'살핌운동'·'신고서화 나들이' 강원국제트리엔날레서 소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ACC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을 통해 탄생한 창·제작 결과물들이 국제 전시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CC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인터랙티브아트 랩)'은 예술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독자적인 예술적 실험, 관객의 참여와 교감을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개발해 미래형 예술을 창·제작하는 랩 기반 프로젝트다. 지난 2022~2023년 진행된 'ACC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의 창·제작 작품 2종이 올해 열린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4'와 '한국국제교류재단 KF XR 갤러리 기획전' 등 국제 전시에 초대 받았다. 먼저 지난해 진행된 'ACC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의 창·제작 작품인 '살핌운동(협업연구작가 조영주)'이 '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4'에 초청받아 오는 27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시각예술 축제에서 세계 각국의 관객과 만난다.

'살핌운동'은 지난해 개최된 'ACC 창·제작 워크숍'을 통해 작가, 안무가, 무용수, 광주 시민 참여자 80여 명이 함께 모여 공동 연구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됐다. 이어 지난해 10~11월 ACC에서 진행된 'ACC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 쇼케이스 전시-기억하기/감각하기-경험의 공동체'에서 공개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 창제작 작품인 '살핌운동'이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강원국제트리엔날레 출품작으로 소개되고 있다. **ACC 제공**

'살핌운동'은 '돌봄, 소통과 관계 맺기'를 키워드로 각자가 돌보는 누군가와 또는 관객이 함께 몸의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상호 교감을 느끼며 돌봄에 대해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또 지난 2022년 'ACC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을 통해 자체 개발한 작품인 '신고서화 나들이'가 내년 1월 24일까지 열리는 '한국국제교류재단 KF XR 갤러리 기획전-시간을 여는 시간'에 전시된다.

'신고서화 나들이'는 남도 고서화의 전통과 대를 이은 현대적 계승이 담긴 작품들을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극고해상도 이미지로 좀 더 가까이, 세밀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체험형 인터랙티브 디지털 작품이다.

지난 2022년 'ACC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 쇼케이스 전시인 '보물선3.0-비밀을 여는 시간'에서 선보였던 '신고서화 나들이'는 남도서화사인 윤두서, 허련, 허건, 송수면 등 고서화에 깃든 우리 예술가들의 정신과 미학을 사자 없이 마주하며 과거의 세계와 깊이 교감하는 신기술 체험을 제공한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ACC 융·복합 연구개발의 창·제작 결과물들이 문화전당을 넘어 국내 및 세계적인 전시에서 선보이게 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융·복합예술 콘텐츠의 지속 연구 개발과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으로 ACC의 창·제작 콘텐츠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아르플래닛, '최혜지&김민호 조인트 리사이틀' 개최

19일 광주 디엠홀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예술단체 '아르플래닛'은 공연기획자 겸 대표 최혜지 피아니스트와 소속 아티스트 김민호 피아니스트의 조인트 리사이틀 공연을 오는 19일 오후 7시 광주 디엠홀에서 개최한다.

최혜지 아르플래닛 대표는 피아니스트로 쇼팽 녹턴 20번, 2번, 13번 등을 직접 연주할 예정이다. 김민호 피아니스트는 8번, 17번, 21번을 연주한다. 이후 2부 공연은 최혜지, 김민호 피아니스트가 함께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포렌즈 편곡 버전으로 환상의 하모니를 보여줄 예정이다. 최혜지 대표는 공연기획자로서의 섬세함과 피아니스트로서의 깊이 있는 해석

을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최혜지 피아니스트 겸 아르플래닛 대표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을 졸업하고 현재 석사과정을 재학 중으로 전남대학교제10회 낭만 피아노 음악의 밤, 음악교육신문 초청 신춘음악회 및 제32회 영아티스트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민호 피아니스트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을 졸업한 뒤 현재 석사과정 재학 중으로 지난 2018년 한량뮤직 콩쿠르에서 3위를 차지하고 제20회 광신대학교 콩쿠르에서는 1위에 오르는 등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19일 열리는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네이버 폼을 통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미취학아동은 입장이 불가하다. **도선인 기자**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jnilbo.com